

환경 호르몬 체내 축적 뎀 '발기 부전' 유발

최근 낙동강에서 발견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체내에 흡수되면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동안 환경호르몬이 주로 남성의 정자와 고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으나 발기부전과 관련된 실험결과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김재중 교수팀(비뇨기과)은 최근 뉴질랜드 백토끼(2kg)에 이들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비스페놀A(150mg/kg)를 투여하고 한달(4주) 지난 후 음경해면체 평활근 절편(3×2×8mm)으로 정상 대조군과 발기유발제에 대한 수축·이완력을 조사한 결과, 비스페놀A를 투여한 토끼군에서 수축·이완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8주이상 지난 토끼군에서는 발기반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음로수 병마개나 수도관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에 함유된 비스페놀A와 관련 "독성농도 이하의 양상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토끼의 음경백막이 콜라겐 섬유이

과다증식으로 인해 매우 두터워져 있었고 백막 내부의 음경해면체에서는 음경평활근의 증식으로 인해 혈관 숫자가 매우 감소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조직 검사결과는 음경의 탄성이 저해되는 것과 음경 발기에 필요한 음경해면체 평활근 절편의 이완반응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또 "이형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은 1조분의 1이하의 극미량에서도 인체에 해를 주고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며 발암성이 강해 심지어는 피부암, 전립선암, 백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나라 발기부전 환자는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령별 발기부전 환자는 40대 5.9%, 50대 13.5%, 60대 51.6%, 70대 7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 1천명 넘어

지난해 말로 우리 나라 에이즈 감염자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187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총

감염자 수가 1,063명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안 34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4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에이즈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2.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우려 3.5배의 증가율을 나타내 감시체계 구축 운영과 감염자와 환자를 위한 센터 및 정보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 감염자 1,063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945명 중 905명인 95.8%가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혈 또는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38명으로 수직 감염자는 2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국립보건원은 밝혔다.

또 감염자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익명검사를 포함한 위험 요인 노출자들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통한 자진 검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초·중·고생 성인병 증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문화가 변화되면서 전북도 내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당이 검출되는 등 성인병 징후를 보이

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3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초·중·고생 32만 8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병리(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 양성 385명, 당노 양성 169명 등 모두 554명이 성인병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 단백질 양성 160명, 당노 양성 202명 등 모두 36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92명이 늘어난 것이다.

단백 검출자의 경우 초등생 98명, 중학생 53명, 고교생 234명으로 나타났으며, 당노 검출자는 초등생 27명, 중학생 23명, 고교생 119명 등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병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은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데다 운동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성인병 징후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식생활 개선 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Z]